

수상태양광 부력체 생산공장 건립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단에... 도-부안군, 유진solar와 45억 투자 협약 내년 5월 착공 목표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수상태양광 부력체 생산 공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전북도는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컨벤션센터에서 부안군(유진solar)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진solar는 1만 2,716㎡ 부지규모에 45억 원을 투자, 수상태양광 부력체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도와 부안군은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과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유진solar는 태양광 관련 사업의 수

요 증가 전망에 따라 적기 대응을 위해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진solar는 이번 투자로 15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첫해에 25MW 발전용량 시공을 위한 부력체 생산을 통해 15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시장확대에 따른 증설 투자 및 생산량 증대로 매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유진solar의 투자가 추후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분양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

진에 촉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지난 7월 경일그린텍(주) 및 (주)이엠퍼스트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 중 경일그린텍(주)와는 분양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은 4개사로, 이들 기업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입주하면, 산업단지 7만,000㎡ 중 37㎡가 분양돼 분양률은 53%로 증가한다.

이외에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는 태양광 분야의 전북대 신재생에너

지 소재개발지원센터, 풍력 분야 한국재료연구원, 연료전지 분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3개의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

또한 향후 3GW 규모의 육상 및 수상태양광 사업이 조성 중이어서 유진solar의 부력체 공급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는 "지난 7월 2개 기업과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연말에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유치돼 앞으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도는 원활한 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연구동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2)'의 발사를 참관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누리호 참관 청소년 우주에 관심 높다”

문 대통령 “별도 콘텐츠 제작·보급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우주에 대해 관심이 많은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콘텐츠 제작과 이를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부 참모진 회의에서 전남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를 참관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보인 우주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처럼 우주에 대해 관심이 높은 미래 세대가 많은 만큼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주발사체와 우주개발, 항공우주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에 대한 다뤄야 할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즐겨 보는 과학다큐멘터리들을 즐겨 보는 것과도 연계해서”라고 말했다.

전날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뤄진 누리호 발사 현장에는 어린이들이 초청됐다. 2명의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학생들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있었던 가장 앞자리에서 발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청소년들을 누리호 발사 참관에 초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탁 비서관은 “순전히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우주로켓 발사라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는 누구를 초청할지 어떤 분이 오셔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그때 누군가가 ‘아이들을 초청합시다’라고 말했고 모두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탁 비서관은 또 참관 청소년들을 향해 누리호 발사 성과와 관계없이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누리호 연구진의 발언을 인용하며 “발사 시퀀스를 설명하던 연구원이 앞줄의 어린이들에게 했던 말씀에 감동했다”고 전했다.

전날 사회를 맡았던 김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누리호가 비행고도 600km에 도달해 위성모사체 단번기가 이뤄지던 순간에 “우리 청소년들도 실재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도전하는 정신으로 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뉴시스

“스마트팜 확산 위한 차질없이 완공을” | 송하진 도지사,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사현장 방문

송하진 도지사가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에 위치한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공사' 현장에 지난 22일 방문해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차질없는 완공을 당부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농업·농촌에 담긴 인구감소, 고령화 개방화, 기후변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스마트팜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및 농생명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확산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공모해 전북 김제를 1차 대상으로 선정한다.

현재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공사는 2021년 11월말 준공식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에 한창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기능은 '스마트팜 창업보육' 및 '스마트팜 임대운영', '스마트팜 실증연구',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스마트팜 창업보육'은 20개월 과정으로 매년 50여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우수 교육생에게는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팜 실증운영실과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ICT기재 등을 개발·보급하고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2일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에 위치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공사 현장에 방문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분석해 디지털 농업으로 진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갈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현장을 시찰하며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설 운영을 함께할 김제시, 실용화재단 등과 함께, 시설운영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스마트팜을 꿈꾸는 예비 청년 농과 만나 스마트팜에 도전하게 된 계기와 스마트팜 창업 성공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송하진 도지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농업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될 것이

다. 전북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없이 완공해 스마트농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경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잼버리 부지매립 88% 달성... 프레잼버리 순항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위한 부지매립 공사가 88%의 공정도를 달성한 가운데, 순수한 매립은 완료된 것으로 전해져, 내년 8월 예정된 프레(per)사건 잼버리대회 준비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레잼버리는 2023년 8월 예정된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앞두고서 대회 운영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사전에 점검하고 체계적인 분행식을 준비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주최와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세계잼버리 부지 8,84km²의 순수매립은 완료된 상태로, 교량과 포장 배수로 공사가 남아있어 88%의 공정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 및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은 설계가 끝났고, 이어서 진행될 이영사실의 설계 공정률도 70%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올해 예정이었던 프레잼버리는 코로나19로 인해 1년 늦춰진 내년 8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열리며, 여성가족부는 대회 전인 내년 5월까지 전체 잼버리부지 조성과 프레잼버리 관련 기반시설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수자원공사 85억 횡령 발생 사실 7년동안 파악 못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22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부산예코델타사(EDC) 사업 횡령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수자원공사가 회계의 기본 원칙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7년 동안 눈치도 못 챜 거액의 횡령이 발생”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자체감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연체 사실을 확인하고, 한 전보에서 과거 고지서가 중복 재청부된 사실을 발견해 9월 29일부터 양일간 추가 확인을 실시한 결과, 10월 1일 수자원 공사 직원인 A씨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약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 1일 부산 EDC사업단의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 A씨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

고 있고,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 직상급자 등을 자체 조사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황당하다”며 “그간 수자원공사는 이런 회계의 기본 원칙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있었고, 만약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켜졌다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었다”고 개탄했다. 또, “이렇게 많은 대형 지출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대형 수자원공사가 이 같은 회계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한 것이 어떻게 용인될 수 있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자원공사 감사실장에게 “사건 관련자가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 방법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담당 직위해제시켜야 된다”며 “직위해

제는 원칙적 성격이 있으므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는 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재 라인에 있는 직상급자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줘야 한다”며 “이렇게 85억이나 되는 거액을 횡령하는 방법행위가 발생했는데, A씨는 소재 파악이 안 돼서 신병 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자원공사는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않고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질타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 5일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지난 18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박재현 사장님에 이 사건을 보고 하지 않았다”고 따져물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원인 파악 책임 규명 그리고 관련자 엄중 문책은 일반백계 차원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며 “수자원공사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실효성이 담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

한병도 의원, 민주 지역성장동력 TF 단장 맡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지난 22일 출범한 '지역성장동력 TF'의 단장을 맡았다. 민주당 지역성장동력 TF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히 추진이 가능한 지역성장동력 확충 사업을 선정해 예산과 인력으로 지원하고자 출범했다.

TF는 한병도 의원이 단장 강준현 의원이 간사를 맡고, 신영대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과 김윤덕 의원 등 주요 상임위원 중심으로 예산확보분과와 입법지원분과로 나눠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지역성장동력 TF 회의에서 “지방 소멸 위기는 과감한 예산, 과감한 정책으로 돌파해야

한다.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지역소멸위기에 지금이 ‘골든타임’이다”고 말하며 “광역별 주요예산과 주력 입법과제를 선정해 정기국회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민생중심 의정활동 공로 높이 평가

이해연 무주군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받아

무주군의회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이 지방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회장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해당 상은 지방의회 30주년 및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의욕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의원에게 수여했으며, 무주군의회는 지난 2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수식을 갖고 수상을 기념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랜 의정 경험에 따른 폭넓은 식견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제9회 무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 감사위원 대표위원을 역임하며 행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고된 정책 제안, 날카로운 행정 감시, 수시 현장 시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태권브이랜드 사업, 체험관광시설 설치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새로운 정책입안을 촉구하고,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 개선책을 제시해 주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군정질문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제고방안,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 등을 적



극 피력하는 등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권도원과 무주군에 대한 홍보와 태권도원센터 등 주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태권도원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태권도진흥재단, 무주군 관계자외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활발한 소통 노력 또한 후한 평가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군민들께서 주신 상이라 생각합니다”라며, “성실하고 지지해주시는 만큼 더 큰 사명감을 갖고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